

# 올림과 잠김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발행: 천주교 디트로이트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 발행인: 오승수 시몬 신부 | 편집: 본당 편집회  
홈페이지: <https://standrewkimdetroit.org/detroit/bbs/monthly-meeting/>

## 주님 봉헌 축일 (2025년 2월 2일)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루카 2,30)



그림:홍승례 아스테리아 수녀, 글씨: 류상애 아녜스 수녀 (출처: 바오로 딸 콘텐츠)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 졌으며  
하느님의 충애를 받았다.”(루카 2,40)



# 1. 시작 기도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본당 설정 50주년 기념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사랑으로 당신의 교회를 살피시는 하느님 아버지,  
본당 설정 50주년을 맞는 저희 본당 공동체에 주님의 축복을 내리소서.

디트로이트 성 김대건 한인 성당, 저희 공동체는 미국이라는 이국땅에서 가톨릭 한인 공동체를 꾸려 왔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부족한 점도 있었겠지만 공동체의 신앙과 사랑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채우면서  
공동체를 꾸려 왔습니다. 50주년을 맞는 지금 저희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창조 때 세상을 보시고 하셨던 말씀, “보시니 참 좋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해주시지 않을까 희망해 봅니다.

저희는 한인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한국 순교자의 신앙에 바탕을 두고 신앙생활을 가꾸어 왔습니다.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의 강인한 순교 영성은 이국땅에서 저희들의 삶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순교 성인들의 강인함을 본받아 저희는 공동체를 잘 지키고 가꾸었고,  
앞으로도 그 모습을 이어가겠다고 50주년을 맞이한 올해 이시간 함께 다짐해 봅니다.

주님, 사랑과 일치와 공동체를 가꾸어 나아가려는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소서.  
주님께서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시니 저희로 하여금 주님 사랑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식탁에서 받은 사명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성찬의 식탁에서 받은 은총을 가난한 이웃들과 기꺼이 나누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또한 저희 본당 공동체의 모든 가정에도 항상 함께하시어 거룩한 주님의 성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저희 본당 모든 교우들이 영원한 생명에도 함께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시작 성가로, 가톨릭 성가 473번 '세상의 빛이시며'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SCAN ME

## 473

## 세상의 빛이시며

연중

보통 빠르기로

노틀담 수녀회



세 상 의 빛 이 시 며      우 리 의 길 잡 이 신



주 님 을 믿 는 자 는 복 되 네



1. 사 람 의 마 음 속      두 려 워 함 있 어      말  
2. 영 원 한 말 씀 이      사 람 이 되 시 어      믿



씀 을 통 하 여      당 신 뜻 알 게 해  
음 이 있 는 자      말 씀 을 들 었 네

## 2. 인사 나누기 및 출석 확인

- 참석한 반원들과 초대 손님이 있으면 인사를 나누고 반원들의 근황과 소식을 나눕니다.

## 3. 기도 지향 나누기

- 오늘 반모임에서 개인이나 공동체에 필요한 기도 지향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 4. 성경을 읽기 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성령의 힘으로 제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느끼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새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5. 하느님 말씀

- 어느 분이 (혹은 한 분씩 돌아가면서) 다음의 성경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루카 2,22-40)**

22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23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 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24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25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26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뵈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 주셨다. 27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28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29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30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31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32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33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34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35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뚫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36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프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일곱 해를 살고서는, 37 여든네 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38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아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39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래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40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충애를 받았다.

- 각자 마음에 와닿는 말씀 (최소 한 단어 / 최대 한 문장) 뽑는 시간을 1분간 가지겠습니다.
- 10분 동안 각자 선정한 말씀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 6. 성경을 읽은 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말씀 안에서 새긴 당신의 사랑을 제 삶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당신을 믿고 당신께 기도하고 당신을 선포하며 성령이 주는 평화 속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7. 말씀과 생활 나누기

- 그 말씀을 왜 선택했는지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각자에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짧게라도 되도록 기도한 모든 이가 나누도록 합니다.)

### 지난달 반모임 말씀과 생활 나눔

-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이사야 42,3) 말씀으로 기도하며, 지금까지 옳고 그름을 가리는 선택의 순간에 직면하게 되었을때 중간적 입장만을 고수하고 선택을 회피해왔으나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공정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겠습니다. [AA2]
-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이사야 42,4) 말씀으로 기도하며, 힘들고 지쳐있던 이민 생활중 어느 날 처음 뵈 할머니로부터 뜻밖의 위로로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낯선 할머니를 통해 나를 위한 위로도 이미 계획을 하시고 돌봐주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AA2]
- 캔톤 반에서는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이사야 42,1),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루카 3,22)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며, 본당의 반모임의 의미는 한달에 한번 모여 함께 복음을 읽고, 한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며 공동의 선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임을 되새겨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만남을 통해 영적 지식과 생활 나눔을 하며 낮은 자세로 자신을 성찰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소공동체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CT]
-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이사야 42,3) 말씀으로 기도하며, 주님께서는 당신의 힘으로 공정을 펴시어 악인들을 벌하시는 무서운 분이 아니시고, 작은 이들도 품어 주시고 모든 이를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NV1]
-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이사야 42, 3) 말씀안에서 공정에 대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편견을 갖게 되는건 아닌지 되돌아보며 앞으로 공정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합니다. [NV1]
-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이사야 42,7)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는 어디에 갇혀 있으며 나의 어둠은 무엇인지를 찾고자 주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NV1]
-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루카 3,22) 말씀으로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제안에 계심을 믿고, 신성이 주신 자비로운 인간의 모습으로 두려움 없이 주님의 소중한 자녀로서 주님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되고자 성실히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NV1]
- 노바이 3반에서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루카 3,22)를 생명말씀으로 선택하여 한달동안 각자의 마음에 이 생명말씀을 품고 하느님께 사랑받고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아들, 딸이 되기위해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NV3]
- 로체스터 1반에서는 “주님인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네 손을 붙잡아 주었다.” (이사야 42,6) 말씀안에서 모두 한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며 하나되는 기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RC1]

- “내가 선택한 이” (이사야 42,1) 말씀으로 기도하며, 내가 신앙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나를 눈여겨보시고 선택해주셨다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RC3]
- “네 손을 붙잡아 주었다.” (이사야 42, 6) 말씀으로 기도하며, 제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차가워 지려 할 때 마다 주님께서는 나를 당신께로 이끌어 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RC3]
-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루카 3,16) 말씀 안에서 하느님의 한없는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RC3]
-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루카 3,22) 말씀으로 기도하며, 본당 설정 50주년 기도문 제목이기도 한 “보시니 참 좋았다” (창세기 1, 31)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게 와닿았습니다. 이 말씀들 안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작품인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RC3]

## 8. 건의 및 기타 토의

- 우리 반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 토의할 사항에 대해 나눕니다.
- 참석 반원의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득표를 받은 사항을 본당에 건의합니다.

## 9. 공지 사항

- 본당 공지 사항과 구역, 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10.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와 날짜를 정합니다.

## 11. 마침 기도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모두 다 함께 ‘소공동체 모임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반 모임에 참석한 모든 가정을 위하여 ‘가정을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가정생활의 자람이시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아멘.



## 12. 마침 성가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생활 성가 셀라책 67번 ‘그가 오신 이유’ 1절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 SCAN ME

# 그가 오신 이유

# 67

김준영 글 / 임선호 곡

C D/C Bm7 Em7 Am7 D7 G

이 세상 - 가장 아 - 름 다운 - 순 종 의 눈 물 -

5 C D/C Bm7 Em7 Am7 D7 G

온 세상 - 다시 빛 - 나 게 한 - 생 명 의 눈 물 -

9 C D/C Bm7 Em7 Am7 D7 G

그 가 이 - 땅 에 오 - 신 이 유 죽 어 야 - 살 게 - 되 고 -

13 C D/C Bm7 Em7 Am7 Am/G Dsus4 D

저 야 만 - 승 리 하 는 - 놀 략 고 영 - 원 한 신 - 비 - 지 으 신

17 G D/F# C/E G/D C G/B Am7 Bsus4 B7

그 대 로 회 복 시 킨 우 리 의 창 조 주 그 리 스 도 - 십 자 가

21 Em7 B7/D# G/D A/C# Am7 G/B C Dsus4 D

의 길 로 - 아 버 지 뜻 이 루 션 - 네 그 가 이 땅 에 오 신 이 - 유 이 제 우

25 G D/F# C/E G/D C G/B Am7 Bsus4 B7 Em7 B7/D#

리 에 게 말 겨 진 그 소 망 그 사 랑 그 생 명 - 아 름 답 고 눈 부 신

30 G/D A/C# Am7 G/B C6 D7 G

십 자 가 의 - 길 우 리 가 - 이 땅 - 에 살 - 아 갈 - 이 유 -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본당 설정 50주년 기념 기도 봉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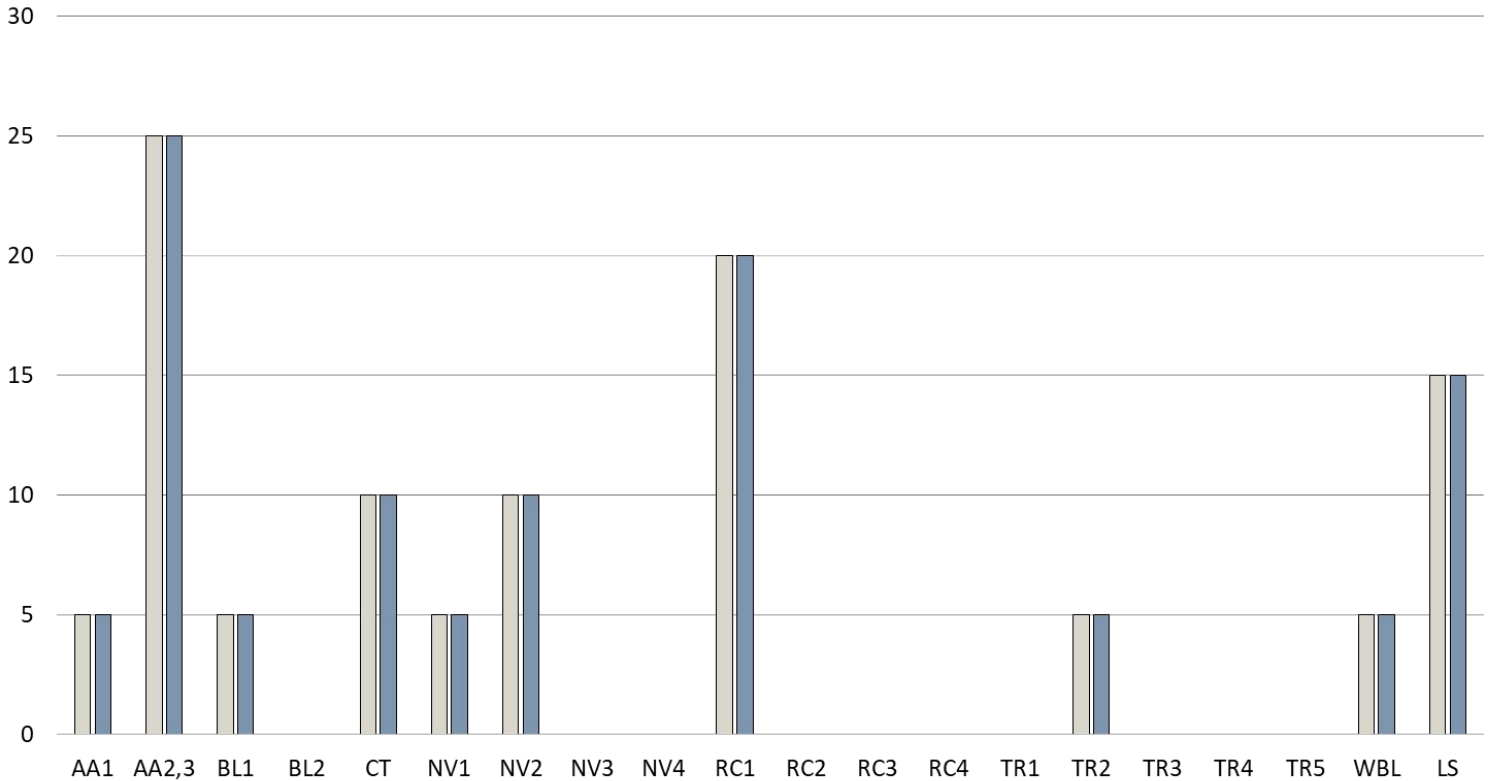
	미사봉헌	목주기도 (단)	본당50주년 기념기도문	영적묵상 (시간)	화살기도	사제를 위한 기도	수도자를 위한 기도	선행
DEC 2024	27	489	40	24	308	51	35	12
JAN 2025	92	1305	397	95	445	403	398	25
누적합계	119	1794	437	119	753	454	433	37



## 2025 성경공부 및 성경잔치 역사서 말씀과 함께

### 반별 숙제 제출 현황

- 여호수아기
- 누적



매달 통독 분량을 공부하고 내용을 정리해서 개인별로 제출하시면 반별로 취합하여 숙제 한건 당 5점씩 반별점수로 11월에 열리는 성경잔치에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정해진 양식의 종이로 제출하시는 경우 사무실 교육부 트레이로, 파일로 제출하시는 경우 홍세훈 교육부장 이메일(sehoon9224@gmail.com)로 매달 마지막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 2025 희망의 희년 Jubilee of Hope

오랜 세월 동안 교회의 희년은 여러 해와 세기의 흐름을 기념하며, 잠시 쉬고, 기도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분의 자비로운 은총을 찬양하는 거룩한 시간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희년의 가장 중요한 정신 중 하나는 순례입니다. 세상을 거닐며 창조의 아름다움을 감사히 여기고, 침묵과 묵상의 필요성을 되새기며, 동료 순례자들과 우정을 쌓고,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 세상을 여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남과 상황 속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요한 14,6)이시며 관문(요한 10,9)이신 그리스도를 찾는 여정입니다.

우리 중 극소수만이 로마로 여행하여 영원한 도시의 희년 성문(Holy Doors)을 통과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알렌 비네론 (Allen H. Vigneron) 대주교는 신자들이 2025년 희년을 위한 공식 기도를 드리고, 로마로 순례하는 이들과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디트로이트 대교구 내 여러 순례지를 지정했습니다.

## 디트로이트 대교구의 순례지

- 성녀 안나 대성당, 디트로이트 Basilica of Ste. Anne, Detroit
- 복자 솔라누스 케이시 센터, 디트로이트 Blessed Solanus Casey Center, Detroit
- 가장 축복받은 성찬 대성당, 디트로이트 Cathedral of the Most Blessed Sacrament, Detroit
- 성모 묘지, 사우스필드 Holy Sepulchre Cemetery, Southfield
- 소화 데레사 성지 대성당, 로얄 오크 National Shrine of the Little Flower Basilica, Royal Oak
- 파티마 성모 성지, 리버뷰 Our Lady of Fatima Shrine, Riverview
- 희망의 성모 묘지, 브라운스타운 Our Lady of Hope Cemetery, Brownstown
- 복되신 동정 마리아 예배당, 리보니아 마돈나 대학교 Presentation of the Blessed Virgin Mary Chapel, Madonna University, Livonia
- 자비의 예수 성지, 클린턴 타운십 Shrine of Jesus, The Divine Mercy, Clinton Township
- 성 요한 바오로 2세 성지, 오차드 레이크 Shrine of St. John Paul II, Orchard Lake
- 성 요셉 성지, 디트로이트 Shrine of St. Joseph, Detroit
-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 성지, 폰티악 Shrine of the Immaculate Heart of Mary, Pontiac



## 2025 회년 기도 The Jubilee Prayer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번역)

하늘에 계신 아버지 Father in heaven,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may the faith you have given us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in your son, Jesus Christ, our brother,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and the flame of charity enkindled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in our hearts by the Holy Spirit,  
복된 희망을 reawaken in us the blessed hope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for the coming of your Kingdom.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May your grace transform us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into tireless cultivators of the seeds of the Gospel.  
새 하늘과 새 땅을 May those seeds transform from within both humanity and the whole cosmos  
확신에 차 기다리며 in the sure expectation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of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아버지의 은총으로 when, with the powers of Evil vanquished,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your glory will shine eternally.

회년의 은총이 May the grace of the Jubilee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reawaken in us, Pilgrims of Hope,  
천상 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a yearning for the treasures of heaven.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May that same grace spread  
온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the joy and peace of our Redeemer throughout the earth.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서는 To you our God, eternally blessed,  
세세 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be glory and praise for ever.

아멘 Amen

*Franciscus*



출처: 디트로이트 대교구 <https://www.aod.org/jubilee>



# 2025 성경 통독

## 여호수아기 말씀과 함께

“이 율법서의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을 밤낮으로 되뇌어, 거기에 쓰인 것을 모두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그러면 네 길이 번창하고 네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명령한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무서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주 너의 하느님이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여호 1,8-9)

하느님께서서는 약속한 땅에 들어가 전쟁을 치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일러 주십니다. 전장에 나갈 장수에게 가르쳐 주신 승리의 열쇠는 첨단무기도, 싸움에 임하는 장병들의 수도 아닙니다. 승리의 열쇠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느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힘과 용기를 내어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또 이 하느님의 말씀의 약속은 전쟁에 나서는 것은 이스라엘 군사들이지만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분은 하느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혼란스러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여호수아기를 통틀어 몇 번이나 나오는 말씀, “**힘과 용기를 내어라**”는 두려운 적을 맞이할 이스라엘 군사들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희망과 살아갈 지침을 주시는 듯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나 모두 차지하지 못했고, 열두 지파가 골고루 땅을 분배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제게 실망과 동시에 희망도 줍니다. 하느님 약속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미완성의 결과를 보게 되는 실망과 신약의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하느님의 약속 이행의 길을 보게 되는 희망입니다. — 글 | 지연희 스텔라

여호수아기를 전쟁사로 본다면, 일상 속 유혹과 씨름하는 저의 모습 같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는 여호수아는 승리의 결과를 얻었고,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나의 시선이 언제나 주님께 향하고 있었는지 반성하게 합니다. 나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나의 몸은 저절로 따르게 됩니다. 욕망과 유혹이 가득한 오늘을 살아가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마음과 몸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땅인 은총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다시 주변의 형제 자매들과 나누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 글 | 정성은 막센시아

“내가 너에게 분명히 명령한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무서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주 너의 하느님이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여호 1,9)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내 삶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아픔 속에서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면서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사라진 것과 같았고, 왜 하필 나여야 하는지, 왜 지금인지 참 많은 원망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겉보기에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언제 아플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또다시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는 걱정과 슬픔이 내 삶에 가득했었습니다. 그런 중에 미국행을 결정해야 했기에 기대보다는 두려움과 걱정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에 오자마자 코로나 팬더믹으로 모든 일상이 멈춰서 있던 시기, 투병중이시던 아버지께서 위독하시다는 전화를 받고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자가격리 중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임종을 지킬 수 없었고, 입관 후 잠깐 아버지를 뵈었던 게 장례기간 중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어야 하는지 또다시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한 번 돌이켜 봅니다. 뇌출혈로 쓰러지지 않았다면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미국행을 택하지는 않았을 테니 주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비행 중에 돌아가시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자가격리 중이었기에 아버지의 임종 순간을 페이스타임으로 함께 하며 녹화한 덕분에 보고 싶을 때마다 아버지를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당시 코로나 기간이라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어서 시간 제약 없이 남은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갖게 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늘 시련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돌아보면 감사와 축복이었습니다. 지금도 다가오지 않은 미래는 여전히 나에게 커다란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궤를 맨 사제들이 요르단강을 건널 때 물을 멈추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호의를 베푼 라합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셨던 것처럼, 내 삶에 늘 함께해 주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에도 무서워하지도 놀라지도 않고 당신만 바라보며 걸어가길 기도하며 어디에 가든지 주 나의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 글 | 이수연 안젤라

여호수아기를 읽고 강의를 연계해서 들으니 재미없게 읽었던 역사이야기에 담긴 하느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은총은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에서 나 자신을 떠올리며 반성해 보았습니다. 약속의 땅은 약속했기에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음을, 치열한 전투를 통해야지만 비로소 얻게 되는 것임을 알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한없이 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 25년 동안 명맥이 유지되어 오던 부족동맹 체제도 궁극적으로는 인간 평등의 실현을 통해 하느님의 정의적 가치를 실현시키고자 하였음을 배우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하느님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가진 것을 나누고 내어 주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을 주시지만 당신 백성의 노력으로 비로소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고자 하셨음을 깨닫고, 현생의 삶에서 영성적인 나눔과 뜻이 나의 실제 생활과의 일치를 통해 주님 성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을 배웠습니다.

종교적이고 영성적인 땅, 그 땅이 지금 나에게 이 곳 미시건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신앙적으로 성숙하라고 유배를 보내신 땅이 이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을 떠나 외롭고 힘든 곳에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성숙하라고 보내신 이곳이 나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성적인 땅임을 다시 한 번 떠올리며 내 삶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 글 | 김미경 낸시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 (여호 21,43)

신앙 앞에서 하느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이며 사랑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자유와 땅의 약속을 애타게 갈망하는 것을 아시고 하느님의 뜻대로 40년 광야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며, 약속의 땅과 성스러운 전쟁으로 하느님께 완전히 봉헌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느님께 봉헌한다는 의미가 다소 거칠고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느님께 봉헌한다는 것이 물건을 태우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니... 하지만 그 완전 봉헌이 우상 숭배에서 철저히 멀어지게 하려는 것임을 이제는 압니다.

나 자신을 봉헌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이라는 신앙의 가치 안에서 하느님께 나를 완전히 봉헌한다는 것은 이미 속세에 길들여진 나에게 어려운 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여호수아기에서처럼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서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주 너의 하느님이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오롯이 하느님의 빛을 향해 나를 봉헌하는 것이 그저 두렵고 무섭지만은 않습니다. — 글 | 김지혜 히야친타

캘리포니아 동쪽 사막에 있는 Joshua Tree National Park에 나무가 팔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 있는 모습이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모습을 닮았다 하여 ‘조슈아 트리’라고 이름 붙여진 나무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에 가게 된 우리 가족은 ‘여호수아’라는 인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생활했던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나누어 주라는 주님의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가 보지 못한 미지의 땅을 정복하고 나누어 주라는 하느님의 명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가득했을 텐데도 여호수아는 오직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습니다. 어떤 생명도 살기 어려운 척박한 사막에 우뚝 솟아 생명을 유지하는 ‘조슈아 트리’라 이름 붙여진 나무처럼 여호수아는 늘 하느님을 향하고 기도하며 무에서 유를 얻어냅니다.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얻어낸 가나안 영토를 정복해 가며 여러 지파에게 나누어 줍니다. 하물며 차지하지 못한 영토도 모든 지파에게 고루 나누어 주며 열심히 노력하면 영토를 정복하여 가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리더로서 정작 자신의 상속 재산으로 좋은 땅이 아닌 척박한 산악지방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 본인은 인간으로서 두렵고 겁이 났겠지만,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욕심부리지 않고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나눠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기를 통독하며 ‘지금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묵상해 봅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얻으려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듣고 믿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호수아는 내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한없이 어려운 질문에 말입니다.

— 글 | 유영미 율리아



# 2025 성경공부 및 성경잔치 역사서 말씀과 함께

역사서 말씀을 함께 통독하고 공부하여 성서에 대한 깊이를 더하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당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대상 : 전신자
- ◆ 성경공부 기간 :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 ◆ 성경잔치 날 : 2025년 11월 22일 토요일

## 매달 통독 분량

월	성경 역사서 통독 분량	신부님 성서공부 강의 녹음파일 분량
1월	여호수아기 총 24장	62~65 (개론) 66~70 (여호수아기 본문)
2월	판관기 총 21장 & 룯기 총 4장	71~75 (개론) 76~80 (판관기 본문) & 82~87 (룯기 본문)
3월	사무엘기 상권 총 31장	88~90 (개론) 91~100 (사무엘기 상권 본문)
4월	사무엘기 하권 총 24장	101~108 (사무엘기 하권 본문)
5월	열왕기 상권 총 22장	108~118 (열왕기 상권 본문)
6월	열왕기 하권 총 25장	119~127 (열왕기 하권 본문)
7월	에즈라기 총 10장	143~145 (에즈라기 본문)
8월	느헤미야기 총 13장	146~TBA (현재 진행 중인 강의)
9월	토빗기 총 14장	TBA
10월	유딧기 총 16장 & 에스테르기 총 10장	TBA

- ◆ 공부 방법 : 개인 또는 그룹으로 매달 분량을 통독 공부하고 개인별로 내용 정리 해서 숙제 제출 / 그룹은 자유롭게 구성 가능하나 숙제는 반별로 취합 / 숙제 한건 당 5점 부여해서 반별로 점수 누적 / 매달 반모임지에 누적 점수 공지
- ◆ 숙제 제출 방법 : 정해진 양식의 종이로 제출하는 경우 사무실 교육부 트레이로,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 홍세훈 교육부장 이메일 sehoon9224@gmail.com 로 매달 마지막 수요일까지 제출